

지역기업 97% “원자재 가격 상승에 경영부담 크다”

광주상의, 기업 경영동향 조사

68.9% 납품단가에 상승분 반영

인력 확보·유지·경기부진 애로

물가·원자재가 안정 가장 시급

최근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유가 및 원자재가 격 상승으로 인해 지역기업들의 부담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상공회의소가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광주·전남지역 중소·중견기업 1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지역기업의 경영 동향 및 대응 실태

조사’를 시행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기업의 96.7%가 ‘원자재가격 상승에 경영상 부담을 느낀다’라고 답했다. ‘매우 부담’은 63.1%, ‘약간 부담’은 33.6%, ‘별로 부담 없다’는 응답이 3.3%로 나타났다.

또 지역기업들은 ‘원재료비 증가(85.6%)’ 외에도 ‘물가 상승에 따른 경비 증가(34.7%)’, ‘노무비 증가(20.3%)’에 대해서도 경영상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 응답)

이러한 경영환경으로 인해 최근 코로나19의 사회적 통제가 다소 완화되었음에도 올 상반기 업황은 ‘코로나 이전보다 악화됐다(45.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코로나 이전보다 호전’은 30.3%, ‘코로나 이전과 비슷’은 24.6%

로 나타났다.

하반기에 가장 우려되는 대내외 환경 변수로도 기업들은 ‘원자재가격 상승’이 87.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외에도 ‘경기 둔화(55.7%)’, ‘금리 인상(39.3%)’, ‘최저임금 인상(29.5%)’, ‘환율 변동성 심화(28.7%)’ 등이 우려 요인이라고 답했다. ‘별다른 우려 사항이 없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로 반영받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68.9%는 ‘일부 반영받고 있다’라고 답했으며, 27.0%는 ‘반영받지 못하고 있다’, 나머지 4.1%만이 ‘전부 반영받고 있다’라고 답했다.

앞으로도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반영받지 못

할 시 대응 계획으로는 ‘마땅한 대응방안이 없다(38.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대체 원자재 발굴(27.8%)’, ‘생산량 감축(11.1%)’, ‘인력 감축(11.1%)’, ‘거래처 변경(8.3%)’, ‘공장 가동 중단(5.6%)’ 등이 뒤를 이었다.

원자재가격 상승 이외에도 기업들은 현재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중 ‘인력 확보·유지 어려움(56.6%)’, ‘경기 부진(43.4%)’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외에도 ‘인건비 부담(35.2%)’, ‘업계 경쟁 심화(21.3%)’, ‘자금조달 애로(18.9%)’, ‘제품 단가 하락(12.3%)’, ‘판로 개척 애로(10.7%)’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지역기업 경기 회복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분야로는 가장 많은 기업이 ‘물가·원자재가 안정(70.5%)’이 시급하다고 답했으며, ‘금융 및 세제 지원 강화(46.7%)’, ‘경기 부양대책 마련(33.6%)’, ‘인력 수급여건 개선(27.9%)’ 등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거리두기 완화에도 불구하고 기업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와중에 원자재값까지 급격히 상승하면서 지역기업들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대내외적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물가·환율 안정과 함께 금융지원 등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기업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연수 기자



초복맞이 보양식 특별하게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하1층 푸드에비뉴에서 초복을 앞두고 15일부터 일주일 간 ‘초복맞이 바다의힘 특집전’을 통해 무더운 여름을 이기는 다양한 보양 수산물을 특별가에 선보인다. /롯데백화점 제공

국가채무 1,019조원…한 달 새 18조원 ↑

5월 말 기준 국가채무가 한 달 새 20조원 가까이 증가해 1,01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6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5월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6월 중 국고채 만기 상환이 이뤄지며 발행 잔액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재정준칙을 수립해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 중반대로 유지하고,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

웠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4조6,000억원(경정입찰 기준 1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6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04조5,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58.9%에 달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와 경기침체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당분간 높은 수준의 시장 변동성이 유지될 전망”이라고 내다 봤다. /연합뉴스

제조 소기업에 혁신바우처 120억 지원

중진공, 2차 참여기업 모집

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분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성호)는 제조 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2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는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맞춤형 패키지 형태로 제공해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3개년 평균 매출액 120억 원 이하 제조 소기업 중 지역별 개별사업공고상 참여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지난 1차 공고에서는 총 498억 원 규모로 일반 및 재기컨설팅,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를 지원했다.

이번 2차 모집에는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고도화 서비스 바우처(20억 원)와 지역단위 자율형 바우처(100억 원)를 신설해 총 1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도화 서비스 바우처는 2020~2021년 혁신 바우처 사업을 통해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에 참

여완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전문가가 현장 진단을 바탕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천해 서비스 고도화 및 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선정기업에게는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바우처 발급 금액의 50~90%를 차등 지원한다.

지역단위 자율형 바우처는 지역별 육성 필요 산업과 경제현안 등을 고려해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설계·지원하는 것으로 전남지역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공고 확인 및 참가 신청은 혁신바우처플랫폼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중진공 통합콜센터(1357) 또는 지역 본부·지부로 하면 된다.

운영회 중진공 전남지역본부장은 “중진공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 바우처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제조 소기업의 혁신성장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전남농협, 농촌관광 활성화 팜스테이 홍보

숙식하며 농사·문화체험

전남 25개 마을 참여 눈길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서홍)는 14일 광주송정역을 찾아 코로나19로 위축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름휴가는 농촌체험 팜스테이 마을로 GO! GO! GO!’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팜스테이는 농가에서 숙식하면서 농사, 생활, 문화체험과 주변관광지 관광 및 마을축제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농촌·문화·관광이 결합된 농촌체험관광 상품으로 전남은 25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광주송정역을 찾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지역본부 직원들과 광주·전남 팜스테이협의회 회원 20여명이 ‘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범국민 봄 조성을 위해 NH곡뱅크에

서 협찬한 전남 쌀과 팜스테이마을 홍보물 등을 나눠주며 여름휴가는 전남농촌마을에서 보내줄 것을 알렸다.

박서홍 본부장은 “침체된 농촌관광산업 및 팜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행사를 가졌다”며 “여름휴가철 깨끗하고 안전한 전남 팜스테이 마을에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우성진 기자



시니어의 여유는 건강에서!

베지밀 5060시니어두유로 건강을 챙기세요

시니어에 필요한 영양을 한팩에- 하루세끼 건강메뉴

- 뼈 건강 위한 검은콩, 고칼슘, 비타민D
- 건강유지 보호막 베타글루칸 이르기린
- 필수 단백질 효율 강화 메티오닌
- 항산화 영양성분 아연(A), 셀레늄(Se)
- 노비구성 물질 오메가3
- 건강한 당 설계 결정과당, 올리고당

